

“승단의 계율 해이해지면 교단도 무너져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출가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또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돌아다닐까 생각하면 땀속깊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는 법혜 스님은 불가와 인연 맺은 것에 대한 감사로 말문을 열었다. 스님의 눈은 예지로 빛났고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동국대 중비생 57인인 법혜 스님은 백상원기 속사에서 지낼 때 도반스님들이 ‘해인사 출사’라는 별호를 지어 불렀다. 별 윤통성이 없고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행하니 도반들이 그러한 별호를 지어준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별호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혜 스님의 주위에는 계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은사인신 도원 스님은 출사였기에 평소에도 계율에 관해서 많이 듣게 됐으며, 대학에서도 자연스럽게 계율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교단을 유지하는 데는 계율이 수명이라고 했어요. 계율이 전승되지 않고 전수되지 못하면 교단이 존재할 수 없으며, 교단이 존재를 못하면 불법이 단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법이 중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이어받을 교단, 즉 승보가 있어야 합니다. 승보를 지탱하는 것은 계율인데 계율이 해이해져 자체적으로 타락해져 버린다면 그 교단은 무너지게 됩니다.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다보면 승가의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혜 스님은 속가 나이로 17세 때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강원 졸업 후 영암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 회계소임을 맡았다. 돈 만지는 일이 생리에 맞지 않아 바뀌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번번이 되자를 맞자,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그 뒤 풀려 대구로 도망 나와서 사내 사찰에 머물면서 대학입시 공부를 했다. 법혜 스님은 부처님 법이 좋고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 열일곱의 나이에 출가를 했을 정도로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다. 대입 검정을 거쳐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 대학원 과정까지 끝냈다. 체질적으로 병약했던 법혜 스님은 동국대 석사학위를 마치고는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접고 치료를 겸해서 대구에 대가사를 지어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교토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던 보광 스님이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권했다. 법혜 스님은 “이런 맘으로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공부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고집을 피웠다. 하지만 보광 스님은 대가사 스님들을 설득해 법혜 스님을 일본 유학의 길로 나서게 만들었다.

“다른 스님들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저는 스님들이 생활비를 보내 주어서 수월하게 공부했지요. 그리고 동국대와 일본 대정대가 자매학교라 등록금이 면제됐으니 공부만 파고들 수 있었습니니다.”

대정대학에서 <능엄경>을 연구해 <돈황본 능엄경 연구>라는 박사논문을 썼다. <능엄경>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 몸을 무리해가면서 연구를 했다. 그리곤 다리가 마비되는 병을 얻게 됐다. 학위논문 받을 때도 다리를 절면서 겨우 단상에 올라가 받았다. 그래도 스님의 연구는 헛되지 않아 <능엄경> 연구로 ‘한일불교문화교류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다.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1988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계율’과 ‘불교윤리’를 후학들에게 가르쳤다. 이십년 동안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정년을 서너 해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했다. 경주 정각원 원장을 여섯 번이나 연임했을 정도로 학교의 법혜 스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법혜 스님은 ‘대구사원주지연합’ 회장 소임을 맡아 지역 불교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구 불자들의 소원이었던 ‘불교대구회관’을 건립해 6층에 만불보전을 조성했다. 그리고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마하아나 불교대학’을 열어 재가 불자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스님은 이런 이력에 대해 전부 다 역대 회장들이 일구어 낸 일이라면서 손사래를 쳤다.

올 팔월에는 <최수백장청규 역주>라는 책을 펴냈는데 몸이 따라 주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법혜 스님을 두고 주변에서는 건강을 망쳐가면서 책을 쓴다고 비난 아닌 비난을 했다.

“건강을 지킨다고 한들 백년을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기도 하지만, 법혜 스님은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하니 시퍼렇게 살아있는 위법망구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 역주한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와 <최수백장청규 역주> 두 권의 책이 후배들에게 ‘청규’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니 다행한 일이라면서 웃으셨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은사스님께서 손수 목숨을 들여 장삼을 만들어주시고 발우가사를 전해주시고, 중노릇 잘하라고 항상 경책해주셨는데, 그런 은사님께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팔만사천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계·정·혜 삼학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혜의 완성인데, 지혜 완성의 첫 시작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려면 계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율부터 실천해야 올바른 참선이 됩니다. 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정이 생기지 않아요. 교육이 계·정·혜 삼학 순서를 지켜서 행해야 지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보급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좋은데 불교를 세속화해서는 안 됩니다.”

<최수백장청규 역주> 등 청규에 관한 책을 펴낸 것은 ‘선종을 표방하고 있는 조계종단의 지율청풍(持律淸風)을 발원하면서 작업한 것’이라면서 “선방스님들이 조선조 오백 년의 모진 승유역불 정책을 견디어 나왔고, 일제 강점기에 정법이 유리당하는 그 속에서 비구선방을 유지했어요. 선방스님들이 계율을 지켰고, 선방스님들이 참선을 했으니 한국불교를 유지하는 것은 선방스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었다.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니

지혜의 완성은 계율 지키기에서 시작
부처님 법 잘못 보급 ‘불교세속화’ 곤란
건강 안 돌보며 저술...“은혜 태산 같아서”

않았구나 생각하니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고 방일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몰아부쳤지요. 부처님 은혜, 은사스님, 법사스님, 신도님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태산 같은데 조금이라도 갚고 가야지요. 건강했다면 오히려 망상을 피웠을지도 모르지요.”

도반들이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건강도 해치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는 농을 하

승가는 비구계를 재가자들은 오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길임을 깨우쳐주었다.

수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법혜 스님을 뵈고 불교대구회관을 나서는데 왜 그러도 가슴이 아픈지... 땀에 와 닿는 한줄기 바람이 참으로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법혜 스님 (前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학장)

1957년 해인사에서 진제도원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1년 해인사에서 자운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 수지. 1972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1975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1988년 일본 대정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3년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 박사학위 취득.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문화대학 학장 및 정각원장 역임. 지금은 대구 대가사에서 주석. <울창> <불교윤리학논집>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최수백장청규 역주> <돈황본 능엄경의 연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생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제) 26×16×16cm 158,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품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평안을 마음속으로 이루어 주며 일에서 힘이 생겨나고 애들이에도 사용한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생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풍납이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정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웃배가 냉하게나 손, 발이 차가운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똥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똥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출터 및 쓰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똥(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약돌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